

2007 아시아 의료복지시설 국제심포지엄을 마치고 Symposium on Healthcare Architecture in Asia 2007

임진우 <이사,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본부장>
Lim, Ji-Woo <Director, KIHA / Director, Junglim Architecture>

지난 4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2007 아시아 의료복지시설 국제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무사히 마쳤다. 의료시설학회로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개인적으로도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처음 시작부터 모든 과정을 다시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다.

1. 시작

2007년 신년 첫 주부터 사무실의 컴퓨터에 심포지엄의 준비모임을 알리는 이메일이 도착해 있다.

1월 4일 무영건축의 회의실에서 학회 임원들이 모여 서로에게 신년인사와 더불어 4월 중순에 예정된 큰 행사에 대해 개략적인 점검과 역할분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진 저녁식사에서 의기투합을 하는 것을 시점으로 몇 개월 후에 있을 국제적인 행사준비를 위한 성화 봉송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매주 정기적인 준비모임은 참여하는 각 설계사마다 돌아가며 회의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2. 준비

실행위원은 전체행사를 총괄하는 위원장과 세미나, 전시, 답사, 재무 등 4개의 분야의 담당자로 구성하고 각 분야 중, 세미나는 다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으로 나누고 답사분야도 3개의 팀으로, 지원 분야는 재무와 협찬, 홍보, 출판으로 세분화하여 각 담당자와 역할을 조직화하였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3년 전 일본에 이은 두 번째 순서라서

당시 참가자의 경험을 토대로 매주 모임을 가지고 준비사항을 분야 별로 점검하고 구체화하면서 한걸음씩 나가기 시작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를 정하는 일부부터 세부 일정계획에 이르기까지 학회임원들과 설계사 담당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하고 안건을 확정짓는 합리적인 프로세스와 행사를 앞 둔 준비위원들의 자세에서 향후 좋은 결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3.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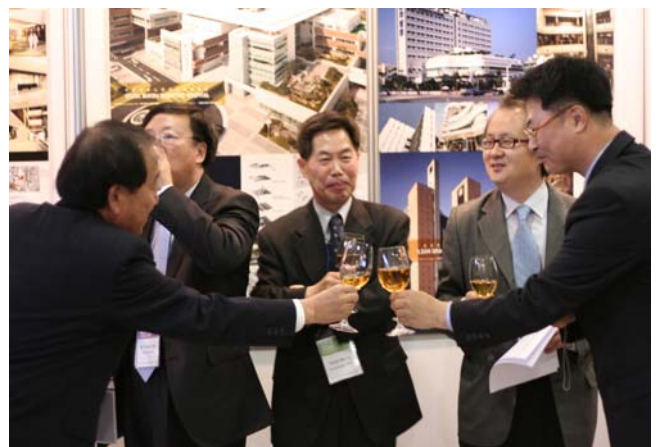
매 주 만나는 준비모임은 총 4개월 동안 14차 회의까지 진행되었다. 이렇게 대장정을 거치는 동안 각 담당자들의 자발적인 열정은 매 회의를 거듭할수록 상승하고 있었으며 회의내용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여 점점 다듬어져갔다. 준비모임이 중후반으로 가면서 처음에 함께 출발하지 않았던 몇몇 설계사들도 짐을 나누어지겠다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동참했다. 포스터와 리플렛 디자인이 수차례 조정단계를 거쳐 제법 완성도가 보이고 초청에 응하는 중국과 일본의 강연자가 누구인지 구체화되어가면서 그동안 정성껏 만들어 온 작은 퍼즐조각이 모여 큰 그림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총 사업비용이 최종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될 무렵, 재무와 협찬을 담당할 임원들이 정확한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건설사와 설계사들에게 참여하는 방향으로 후원을 적극적으로 독려했었고 그 결과 행사를 치를 수 있을 만큼의 후원금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 전날, 총 15개의 전시부스에는 각 설계사마다 자랑스러운 병원작품의 패널이 전시되었으며 행사도우미들의 세부행동계획까지 철저히 마련되었다. 이로써 만반의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성공적인 행사가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4. 행사 및 답사

드디어 행사 당일 (4월 19일), 서울시립대학교의 아침은 쾌청한 날씨와 여기저기 봄을 맞아 터트린 꽃나무들로 캠퍼스가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예정했던 200여명의 참석자의 숫자가 오프닝 시점에 거의 정확하게 모였으며 첫 번째 세션부터 마지막 질의응답의 순서까지 중간에 비어가는 자리가 없어 꾸준한 참여열의에 놀랐고 평소에 절친하던 교수님들과 행사준비를 해 온 담당자들의 외국어구사 실력에 또 한번 놀랐다. 오전에는 오프닝순서와 첫 번째 세션을 가졌으며 기념사진촬영과 점심식사 조달도 차질 없이 즐겁게 진행되었다. 오후에도 각 발표자의 순서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모국어가 아니어서 오히려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청중들의 자세가 더욱 진지하게 보였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심신이 지쳐갈 무렵 리셉션은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뒤풀이 행사였다. 몇 차례의 건배제의가 돌아가면서 유창하지는 않지만 외국어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는 정겨운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연출되고 있었다.

행사 다음날, 병원답사는 3개조로 편성하여 진행되었다. 현재 운영 중인 병원을 각 조마다 중국과 일본의 대표를 합쳐서 20여 명이 세밀하게 견학해야 하므로 각 설계자들이 설명을 곁들인 안내와 더불어 병원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였다. 우리는 학회에서 미리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양해를 구해두었고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었다.



5. 소감

이번 행사는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고,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학회의 임원들과 행사준비를 맡았던 담당자들의 단합의 힘이다. 사단법인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는 설립 후 15년의 길지 않은 역사에 불과하지만 이 학회에 몸담았던 선배세대의 노련한 경험과 학회에 대한 애착, 후배세대들의 순수한 열정이 시너지가 되어 모두 하나의 힘으로 결집된 결과이다.

둘째, 탄탄한 준비와 빈틈없는 공정계획이다. 준비모임마다 미리 이메일로 각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참석가능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회의내용을 매 회 별로 이메일로 다시 보내주는 세심한 배려가 뒷받침되었다. 또한 주 단위와 일 단위의 치밀한 타임매트릭스 계획표는 논문을 준비하는 발표자들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훌륭한 네이게이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셋째, 설계사의 헌신과 자발적인 참여의지도 성공의 열쇠 중 하나이다. 14차에 이르는 준비모임을 각 설계사마다 차례로 방문하여 진지하게 토론하고 회의를 마친 후에는 어김없이 풍성한 저녁식사 대접으로 뒤편이가 있었다.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소주잔과 함께 친목이 다져지고 경쟁사의 관계를 벗어나 행사준비의 협력자로서 상호이해가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성숙한 동반과 참여의식은 우리 학회에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치르면서 우리 학회는 이전보다 더욱 긍정의 힘을 가진 성숙한 조직임을 알게 되었다. 필자 역시 개인적으로는 영어로 발표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걱정했지만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상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학회 교수진들의 학문적기반과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실무적 기반이 한데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여주었던 이번 행사를 마치며, 학회가 매우 자랑스럽다.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낸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준비위원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리며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2년 후 중국에서는 한걸음 더 발전된 국제심포지엄이 되길 기대한다.